

기초연금 오늘 첫 지급 ... 1인당 최대 20만원  
광주 10만3천 명·전남 31만 명 月 741억원

## 노인들 '방긋'



지자체, 예산압박에 울상  
재보선 투표 맞물려 눈총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만면에 미소를 보이겠지만,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울상이다. 노인들의 지급은 두통해진 반면, 매년 최대 100억원이 넘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마련해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그저 반길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25일 첫 지급한다.

일시에 풀리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잠재일로에 있는 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급 시기가 7·30 재보선 선거 사전투표 시기와 맞물리면서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5일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광주 10만2829명, 전남 30만9159명 등 모두 41만1988명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이 늘어나면서 7월 기초연금 지급액으로 광주는 184억 9100만원(국비 70% 시비 18% 구비 12%), 전남은 556억1280만6000원(국비 84% 도비 3% 시군비 13%)을 마련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전남의 군들은 예산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자립도 6%인 강진군은 9647명에게 기초연금을 주기 위해 매달 1억 3900만원, 매년 14억6800만원을, 재정 면에서 그나마 나은 여수시 역시 3만3286명을 위해 한 해 172억8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말 광주·전남의 노인인구가 각각 15만여명, 37만4000여명이었

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은 전체의 8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단독가구 매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값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93%가 기초연금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게 되며 나머지 7%의 경우 2만~19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들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달 25일 7·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강모(78)씨는 “국가가 자식보다 낫다”며 “어렵사리 살고 있는 입장에서 20만원이라는 돈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초연금 수령으로 소득이 높아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 시·군·구에 이 같은 사례가 있는 지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소득 향상에 따라 수급자 탈락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뒤 선택하도록 해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실정에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비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진도고 학생들이 “친구들이 돌아와”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오후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열린 ‘100일의 기다림’ 행사에 참여한 진도고등학교 학생과 실종자 가족, 진도 주민들이 남은 실종자 10명의 귀환을 기원하는 노란풍선을 날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41조 풀어 내수시장 활성화

경제관계장관회의 ‘4기 경제정책’ 확정 ... 성장률 4.1%→3.7% 하향

정부가 앞으로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신설된다.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자금 등 추가 재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 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다. 가계의 근로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도입된다. 이익

의 일정 수준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2년 연장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납용 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또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도 줄여주기 시작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화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7·30 재·보선... 오늘·내일 사전투표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 가능

광주·전남 4개 선거구 등 전국 15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7·30 재·보선 선거의 사전투표가 25일부터 이틀간 일제히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특정 기간을 지정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거일인 30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다면 25~26일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15곳의 투표소

에서 소중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다만 이번 재보선은 전국단위 선거가 아니라 선거가 열리는 지역 내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재·보선은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광주·전남 4곳을 비롯한 전국 15곳에서 치러진다. 아울러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선관위는 또 이날부터 실시하는 재보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24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일시: 10월 19일(주일)~22일(수)  
장소: 광신대학교, 광주신일교회  
광신대학교 062)605-1000

광주 중흥동 평화맨션 균열  
주민 긴급 대피 ▶7면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 유근기 곡성군수 ▶11면

(주)서진종합건설

국립공원급 자연과 명문학교를 품은  
**단 하나의 프리미엄!**  
광주 일곡 엘리체 프라임

오픈기념  
사은품증정  
7월 25일(금)~7월 27일(일)까지 총 3일간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사은품을 드립니다

7월 25일(금): 리전  
7월 26일(토): 혼합세대  
7월 27일(일): 리면

엘리체 PRIME

**7월 25일 OPEN**

청약일정안내

특별공급	2014.07.28.(월)
1순위	2014.07.29.(화)
3순위	2014.07.30.(수)

분 / 양 / 문 / 의  
**062)573-4404**

74㎡ A/B/C • 84㎡ A/B • 총 526세대

사은: 에스이엔씨(주) 사은: (주)서진종합건설